

HEIBAC이 남긴 성과와 교훈

우리나라 제과 업계 史上 처음으로 열린 하인즈 빵·과자 경연대회는 성공적으로 개최 됐다는 評價와 함께 많은 애기거리를 남겼다.

특히 이번 대회를 통해 두드러지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제품을 구성한 사례가 많았던 점을 들 수 있으며 심지어는 한약재를 원료로 하여 작품을 구성한 예들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것들로서 전향적인 기술현장을 살피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이번 대회의 평가였다.

뿐만 아니라 특수빵부문을 비롯한 일반빵부문, 건과부문, 양생과자부문, 공예과자부문, 테크레이션 부문등 6개 부문중 양생과자 부문을 제외하고는 고루 진일보한 기술을 表出시킨 행사였다는 것도 이번 대회의 수확중의 하나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번 대회를 결산하면서 반드시 짚고 넘길 점은 무엇이며 남긴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점이다.

첫째 제1회 하인즈 빵·과자경연대회가 남긴 것은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는 場으로서나 또는 기술인들의 기술의 욕을 재창출하는 광장으로 승화시켜 나아가기 위하여 전국의 모든 회원과 기술인이 공동체가 된 가운데 허심탄회하게 참여 하는 것만이 이 행사의 존재가치가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겠다. 더 부연한다면 연관업체의 재정지원을 받아 개최하는 대회라고 비아냥 거리는 심사로 대회를 보는 그러한 시각은 지양돼야 한다는 점이다. 적어도 이번행사에 소요된 재정은 1억5천만원에 이른다. 이같은 재정을 우리협회가 맡아 낼 수만 있다면야 오죽 좋을까 만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처지도 깊숙이 들여다 보는 슬기가 있어야 한다. 문제는 '연관업체의 지원이 장사속에 있다고 하는 근살긴 생각에서 벗어나 기술지향의 大道를 향한 지혜가 발동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하겠다.

둘째로는 賞金에 연연 하기 앞서 기술을 겨루는 場에는 기술인이면 그 누구나 흔쾌히 나아가 연마한 기술을 발산시키고 발표하는, 그래서 장인정신을 북돋고 길러 기술인과 더불어 업계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우리 모두가 이룩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겠다.

셋째로는 이번 대회 기간중 5일과 6일은 작품참관을 할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았었다. 그러나 참관인원은 불과 1천여명에 불과 했던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외국에서 이같은 행사가 있어도 참관하고자 길을 떠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관인원이 이토록 적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넷째, 이번 경연대회에는 당초 참가신청자가 382명이었으나 실제 참여한 인원은 245명이었다. 이같은 숫자는 해외의 사례로 보아도 결코 적은 인원은 아니다. 그러나 소스라칠 정도로 놀라운 사실은 245명중 서울에서 29명만이 출전한 외에 나머지 215명이 지방에서 올라와 기술과 기량을 펼쳤다는 것은 도무지 믿어지지 않은 일이다.

전국의 1만5천여 베이커리 가운데 4천여 업소가 포진하고 있는 서울의 제과점 업소들은 겨울도 오기전에 깊은 冬眠에 빠져 있던 말인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41**